

제7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9일)

풍요를 기원하다, 농경문 청동기

황은순, 103호 청동기실 18:00~18:30



길이 7.8cm, 폭 12.8cm, 두께 1.5mm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청동기는 2,5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청동기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아랫부분이 깨졌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방패모양 청동기와 유사하여 기원전 5~4세기경에 해당하는 유물로 여겨집니다.

앞면 오른쪽에는 머리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고 벌거벗은 채 따비로 밭을 갈고 있는 남자와 상반신만 남아 있지만 팽이를 높이 치켜든 인물이 묘사되어 있고, 왼쪽에는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두 인물은 봄날 밭을 가는 ‘춘경春耕’을, 왼쪽의 인물은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秋收’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뒷면에는 Y자형의 나뭇가지 끝에 새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앉아있습니다. 예로부터 나무와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는데, 마을의 안녕과 평화,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신앙 가운데 하나인 솟대를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앞뒷면에 새겨진 그림들로 볼 때 이 청동기는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염원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의기로 추정됩니다.

제7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9일)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

김영희,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은 조선 1673년(현종 14), 청양 장곡사에서 승려와 일반 신도 등 83명의 후원으로 조성된 괘불입니다. 삼베 17폭을 옆으로 잇대어 높이 8m, 너비 5m가 넘는 거대한 화폭을 만들었고, 화승 철학哲學 등 승려 장인 5명이 함께 그렸습니다.

이 괘불은 화면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39위位的 등장인물 옆에는 모두 붉은색 네모칸을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을 썼습니다. 생김새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불·보살·권속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명칭의 기록에 따르면 화면 중앙을 거대하게 차지한 본존불은 ‘미륵존불’입니다. 조선 후기의 괘불도 가운데 본존이 미륵불로 기록된 것은 이 장곡사 괘불과 <부여 무량사 괘불>(1627)의 단 두 점뿐입니다.

한편 장곡사 괘불의 화기에 ‘칠갑산 장곡사 대웅전 마당에서 열린 영산대회 괘불 [七甲山上長谷寺大雄殿庭中靈山大會掛佛幀]’이라고 기록된 것이 주목됩니다. 영산대회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한 일을 상징하는 법회로, 영산대회의 주인공은 석가모니불이 됩니다. 이처럼 이 괘불은 화면의 명칭과 하단의 화기 기록이 각각 ‘미륵불’과 ‘영산대회’로 서로 달리 나타나며, 이는 이 괘불이 어떤 하나의 도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웅전 마당에 열린 영산대회 괘불’이라는 기록은 이 괘불이 걸린 의식이 행해진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장곡사에는 상·하 두 개의 대웅전이 있습니다. 규모로 보아 하대웅전 앞의 뜰이 1673년 5월 처음 괘불이 올라간 곳으로 여겨집니다.

괘불이 걸린 곳은 어디든 부처가 설법하는 청정한 땅이 됩니다. 2023년 봄, 박물관에 펼쳐진 부처의 뜰로 초대합니다.



그림 6 청양 장곡사 괘불, 철학 등 5인, 조선 1673년, 895.8×585.0cm, 삼베에 채색, 국보

황남대총, 마립간의 왕권과 무덤

류정환, 108호 신라실 19:00~19:30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에는 60만㎡에 달하는 면적에 무수히 많은 고분이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릉원에 있는 황남대총은 봉분 규모가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 7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발굴조사 되었고, 원래 형태대로 봉분을 복원하여 보존하였습니다. 겨문거리는 수만여점에 이르는데, 국보인 금관과 금제 허리띠를 비롯하여 국보 4건, 보물 10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황남대총(황남동 98호분)은 둥근 형태의 돌무지덧널무덤이 연이어 축조된 무덤(표형분瓢形墳)입니다. 전체 길이 120m, 남분·북분의 지름 80m, 높이 22.4~9m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단일 무덤 중 도로 건너편에 있는 봉황대(노서동 126호분)가 가장 크지만, 지름 75m, 높이 19.9m로 황남대총 남분·북분 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남분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봉분의 북쪽 일부를 제거하고 북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구조는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돌무지를 설치한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입니다. 남분은 널이 안치된 주곽과 수많은 겨문거리가 함께 묻힌 부곽이 따로 설치되었으며, 북분은 한 덧널에 널과 겨문거리를 함께 넣었습니다.

황남대총은 규모, 구조, 겨문거리로 볼 때, 신라 마립간기의 왕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분에는 남성, 북분에는 여성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왕의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선왕 부인의 무덤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와 같은 초대형 무덤을 축조할 때에는 국가적인 권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례 과정에서 마립간의 왕권이 공식화되고 신라 대내외적으로 행사되었습니다.



그림 1. 경주 황남대총 전경



그림2. (국보) 황남대총 북분 금관 및 금제허리띠

제7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9일)

고려 왕실 이야기

김선미, 113호 고려 I 실 19:00~19:30

시책諡冊은 왕이나 왕비의 사후에 시호諡號를 올리는 의례에 사용된 의물입니다. 인종시책(국보)은 고려 제18대 국왕인 의종毅宗이 돌아가신 선왕에게 공효대왕恭孝大王이라는 시호와 인종仁宗이라는 묘호를 올린 뒤 장릉長陵에 장사지낼 때 함께 묻은 유물입니다. 이 시책은 총 43개의 책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종의 성품 함께 원구圓丘에서의 제사, 서경西京의 반란 진압, 궁궐 신축 등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시책(앞부분)

인종은 고려 제17대 왕(재위 1122~1146)으로, 예종睿宗과 순덕왕후順德王后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외조부는 이자겸李資謙입니다. 이자겸은 경원이씨慶源李氏이며, 그의 둘째 딸이 예종의 비妃가 되고 원자元子를 낳자 재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경원이씨는 당대 최고의 귀족가문이었습니다. 경원이씨와 왕실의 인연은 제8대 국왕인 현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李子淵은 1045년(현종 15)에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 이자연은 현종의 장인인 김은부金殷傅의 처조카였습니다. 이후 이자연의 세 딸이 문종文宗과 혼인하여 인예태후仁睿太后, 인경현비仁敬賢妃, 인절현비仁節賢妃가 되었으며, 인예태후가 낳은 아들 10명 중 3명이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니, 바로 순종·선종·숙종입니다. 순종과 선종 역시 경원이씨 가문의 여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원이씨는 왕실과 연속된 혼인으로 당대 최고의 귀족가문이 되었고, 그 권세는 이자겸 때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종 즉위 후 이자겸은 중서령中書令에 올랐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과 혼인시켰습니다. 이자겸의 권세가 막강해지자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이자겸과 그의 우익인 척준경 등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감금하였고, 인종은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사전崔思全의 계책으로 이자겸은 결국 축출되었습니다. 인종시책에 궁궐을 새로 지은 공로가 있다고 기록된 것은 바로 이자겸의 난 때에 불탄 궁궐을 재건한 것을 뜻합니다.